P-X, 동남아 시장 지각변동 징후!

Pertamina, 2004년부터 내수용으로 판매 … 생산능력 70만톤 이상

인도네시아의 P-X(Para-Xylene) 공급구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Pertamina의 Cilacap 소재 27만톤 플랜트의 수출계약이 2004년 종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메이커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Tuban의 프로젝트도 9월에 융자가 결정되고 2003년 말부터 공사가 재개돼 2005년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융자는 Mitsui와 JBIC가 2억달러씩 보증하며 NECSI,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이 Pertamina와 융자를 얻는 방안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PTA 수요는 130만톤으로 일본계를 포함해 5사가 진출해 있지만 P-X의 자체 조달량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2가지 공급원이 확보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PTA 메이커들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기업인 Pertamina, Polyfrima, Polysindo와 외국계기업인 Mitsubishi Chemical Indonesia, AMI(Amoco·Mitsui PTA Indonesia)가 PTA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료인 P-X 생산은 Pertamina의 Cilacap 소재는 27만톤 플랜트에 그치고 있다. Pertamina는 생산량 중 약 50%를 PTA 22만톤 가동으로 자가소비하고 있다.

나머지는 Chevron Phillips가 수출해왔으나 2004년 계약이 종료되면 인도네시아 PTA 생산용으로 판매될 것이 확실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Cilacap는 PTA 플랜트가 집중된 Merak와 같은 Java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P-X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재개가 기대되는 East Java Tuban의 BTX 플랜트의 투자계획이 결정돼 현재 막바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융자계약은 9월경 체결돼 2003년 말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주력 P-X 플랜트는 60-70% 완공된 상태이나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공사재개부터 완공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X 플랜트가 완공되면 인도네시아의 P-X 상업판매능력은 Cilacap과 함께 70만톤을 넘어서게 돼 대부분을 싱가폴이나 타이, 극동아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PTA 생산기업들의 원료 수급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2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